



Hello! I'm Sister Eileen Johnston. I am a middle child who had the benefit of having an older (Helen) and younger sister (Dottie) and benefited. Our dad liked taking his daughters to the photographer. After he died, our mom always kept the last picture he had taken of us (shown here) on the mantel in the living room. We were living in Richmond, Virginia when my dad was told he only had months to live due to injuries he sustained in World War I. We moved back to Pittsburgh and my dad was taken directly to the Veteran's Hospital. We



moved into my mom's family home with my aunt. I attended St. Agnes School where the Sisters of Mercy taught. I remember as a second grader saying I wanted to be a Sister. When I went to Sacred Heart High School, I planned to keep in touch with the Mercy Sisters and not get to know the Sisters of Charity. Toward the end of my senior year, I went to Seton Hill for a one-day retreat. My family and I were surprised that I petitioned to enter the Sisters of Charity that day. It was a decision for which I always thank God.

I entered on September 8, 1958 along with thirty-two other young women. We ended up with eleven. It was a time when many parishes opened schools so most of us were teachers. After ten years of teaching primary grades, I wanted to work with special needs children. I was missioned to DePaul School for Speech and Hearing. It took creativity and patience to help a child with hearing impairment understand words and use them correctly. The challenges were great and so were the rewards.

I left DePaul after thirteen years to be the vocation director for our community. That had its challenges and rewards too! I then went back into the elementary school as principal for the next 24 years, Conn-Area Catholic in Connellsville for five years and nineteen at St. Therese in Munhall. I was blessed to work with dedicated priests, wonderful children, their parents, gifted teachers and staff. My years in the ministry of education were gratifying. I loved working with children of all ages and had the pleasure of welcoming special needs children from St. Anthony School to St. Therese School where they were integrated into the regular classroom for some subjects.



I wasn't looking forward to retirement but it was brought about by a health issue. I thought about retirement as being the end of school ministry and the beginning of "something else," but what? I prolonged my school involvement for a few more years by managing the Safe Environment Program for the school and parish, being a substitute teacher, and helping the eighth graders each Lent to present the Living Stations—my favorite part of Lent. When Sister Susan Jenny made a request for an administrative assistant, I responded and was grateful that another "something else" was part of my retirement for a few years.



When I look back over the places where I lived and taught, the children God placed in my care, and all that I learned from the Sisters with whom I lived, I appreciate every experience God gave me, every person God put in my life as the perfect preparation for retirement and a future that only God can see.



안녕하세요! 아일린 존스톤 Eileen Johnston 수녀입니다. 저는 언니 헬렌 Helen 과 여동생 도티 Dottie가 있어요. 둘째 딸로 언니와 동생 사이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세 딸을 사진사에게 데려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하셨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는 아버지가 딸들을 데려가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을 항상 거실 벽난로 위에 두었습니다. (아래 사진)

가셨고 우리는 이모와 함께 외가로 들어갔어요.

저는 자비의 수녀님들이 가르쳤던 성 아그네스 St. Agnes 학교에 다녔습니다. 아마 2학년 때 수도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던 거로 기억해요. 성심 고등학교 Sacred Heart High School에 다닐 때도 사랑의 씨튼 수녀님들을 잘 알지 못했고 자비의 수녀님들과 계속 연락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졸업반이 끝나갈 무렵에 씨튼 힐로 하루 피정을 하러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날 사랑의 씨튼 수녀회에 입회하겠다고 청했습니다. 저도 우리 가족들도 모두 놀랐지요. 그 날 내린 이 결정에 대해 항상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1958년 9월 8일에 다른 청원자 32명과 함께 입회했는데 11명만이 남았습니다. 그 당시는 많은 본당에서 학교를 시작해서 우리 대부분은 교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그 후에는 장애가 있는 아이들과 함께 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청각장애 학교인 드폴 학교 DePaul School for Speech and Hearing로 파견을 받았습니다. 청각 장애를 가진 아이가 단어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의성과 인내심이 필요했습니다. 어려움이 큰 만큼 보람도 컸지요.

13년 후 드폴 학교를 떠나서 수녀회 성소 담당을 했습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로 어려움과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 후 다시 초등학교로 돌아가 교장으로 24년을 일했습니다. 코넬스빌 Connellsville의 콘에어리어 Conn-Area 가톨릭 학교에서 5년, 먼홀 Munhall에 있는 성 테레사 St. Therese 학교에서 19년을 보냈습니다. 교육 사도직을 했던 시간은 참으로 기쁘고 만족스러웠습니다. 저는 모든 나이대의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성 테레사 St. Therese 학교에 있을 때는 일부 과목에서 성 안토니오 St. Anthony 학교의 장애 학생들을 받아 통합수업을 했던 일도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건강 문제 때문에 생각지도 않게 은퇴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은퇴는 학교 사도직의 끝이자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퇴 후 몇 년 동안은 학교 관련 일을 계속했습니다. 안전한 학교와 본당 환경 프로그램을 관리했고, 대체 교사도 했고, 사순시기에 8학년 학생들이 하는 십자가의 길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십자가의 길을 연출하는 리빙 스테이션스 Living Stations는 제가 사순 시기 중에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수잔 제니 수녀님이 행정업무 보조하도록 요청했을 때도 제 은퇴의 삶에서 얼마 동안 또 "다른 새로운 일"에 참여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응답했습니다.

제가 살고 가르쳤던 곳, 하느님께서 나에게 돌보도록 맡기신 아이들, 함께 살았던 수녀님들에게 배웠던 모든 것을 돌아보며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모든 경험과 은퇴 후의 삶을 완벽하게 준비하도록 제 삶에 허락하신 모든 사람 그리고 하느님만이 아시는 앞으로의 미래에도 감사드립니다.